

해외 표준화기구 동향

TTA 표준기획부

2015년 1월

(2014.12.25.~2015.01.1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목차

I. 국제 표준화 기구

- ▷ ITU의 새 사무총장 취임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 ATIS, 정전에 관한 계획적 유지보수 리포트 발표
- ▷ ATIS, 무선 9-1-1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비상위치테스크포스(ELOC) 설립
- ▷ IEEE, 초고화질 디지털 연결을 위한 HDBaseT 표준 채택
- ▷ IEEE, 무허가 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반 신설

2. 유럽

- ▷ 유럽, smart metering 강화를 위한 공동 표준 개발
- ▷ ETSI,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첫 단계 작업 완료

3. 중국

- ▷ 중국, 2014년도 전자정보통신 표준화 10대 뉴스 발표

4. 일본

- ▷ 일본총무성, 스마트폰 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검증 등의 실증실험 실시

5. 한국

- ▷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서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2건의 표준 승인

III.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 2015년 국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IoT 중심으로
- ▷ W3C와 OGC, 웹상에서의 공간 데이터 통합을 위해 협력
- ▷ AllSeen Alliance, 오픈소스 AllJoyn IoT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신설

I. 국제 표준화 기구

■ ITU의 새 사무총장 취임

2015년 1월 15일, ITU 신임 사무총장 Houlin Zhao가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Houlin Zhao는 지난 10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ITU 사무차장으로, 그리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ITU 표준화 국장으로 역임한바있다. ITU 표준화 국장으로 두 번 역임한바 있는 영국의 Malcolm Johnson은 ITU 사무차장으로 선출되었다. Francois Rancy와 Brahim Sanou는 각각 전파통신사무국과 전기통신개발사무국의 이사로 재 선출되었고, 한국의 이재섭은 ITU 표준화 국장으로 선출되었다.

2015년은 ITU 설립 150주년이며, 올해 5월에 열릴 세계 전기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을 통하여 기념할 예정이다. 올해 ITU는 ICTs를 혁신의 선두주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이벤트는 아래와 같다.

-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광대역위원회 특별 회의를 공동 개최
- 2월: 세계 라디오의 날(2.13)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행사 개최
- 3월: 표준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네트워크 자동차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 초점을 맞춰 제네바 모토쇼 개최
- 4월: 소녀, 여성, 그리고 혁신에 초점을 맞춰 '혁신을 위한 코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
- 5월: 세계전기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에 참석(5.21-22). WSIS 포럼 개최(5.25-29)
- 6월: 스페셜 웹세미나(Webinars)에서 디지털 배당 및 통신 기회의 이점에 대해 토론
- 7월: 10억 명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블로그, 웹세미나, 포드캐스트 등을 다룰 예정
- 8월: 혁신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목
- 9월: 리얼타임 비행 추적과 레이더, 위성 네비게이션에 관한 해양과 항공 작업에 집중
- 10월: 빅데이터와 혁신에 맞춰 디지털 금융 서비스, 모바일 머니, 항공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다룰 예정
- 11월: ITU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ITU 세계전파통신회의를 개최(11.2-27). 이 회의에서는 전파규칙을 검토, 개정하고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 궤도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에 대해 다룰 예정
- 12월: 광대역과 WRC-15에 대해 강조. 전 세계 ICT 발전수준과 한 해 동안의 성과를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Symposium (WTIS)에서 발표

출처: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5/CM01.aspx#.VLyfWCofp9A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ATIS, 정전에 관한 계획적 유지보수 리포트 발표

ATIS는 ATIS 네트워크 안정성 운영위원회 (NRSC, Network Reliability Steering Committee) 공지번호 2014-001인 "정전에 관한 계획적 유지 보수(Planned Maintenance-Related Outages)"를 발표했다. 분석을 통해 4G LTE구축과 DS전송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 향상이 정전의 주요 원인을 발견한 것처럼 통신 관계자는 작성된 관련 모범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http://www.atis.org/PRESS/pressreleases2015/010815.asp>

■ ATIS, 무선 9-1-1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비상위치테스크포스(ELOC) 설립

ATIS는 무선 9-1-1 호출에 관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위치 긴급 태스크포스(ELOC, Emergency Location Task Force)를 설립했다. ELOC는 국제 공공안전 통신 관계자 협회(OPCO, 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와 국가 비상 사태협회(NENA, 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 무선사업자 AT&T, Sprint, T-Mobile, Verizon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로드맵에 설립된 표준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형성 되었다.

ELOC는 북미 비상 위치 기능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로드맵 지원을 위해 표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ELOC 솔루션의 광범위한 구현 및 채택을 위해 3GPP 등의 조직들과 협력할 것이다.

출처: <http://www.atis.org/PRESS/pressreleases2015/010915.asp>

■ IEEE, 초고화질 디지털 연결을 위한 HDBaseT 표준 채택

HDBaseT Alliance¹⁾와 IEEE는 HDBaseT 표준이 IEEE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IEEE-SA)의 표준 포트폴리오로 채택되었음을 발표했다. 채택 절차가 완료된 후 HDBaseT 표준은 IEEE 1911TM 표준으로 명칭 될 예정이다.

1) HDBaseTTM Alliance: LG전자와 삼성전자,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발렌스(Valens)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되었고, 소비자 가전 및 전문 AV 시장을 선도하는 연합. 연합은 HDBaseT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

HDBaseT는 디지털 미디어의 장거리 초고화질 배포를 위한 성공적인 기술로써, 현재 수많은 제품들이 HDBaseT 인증을 받고 상용화 중이다. HDBaseT는 시장에서 검증된 통신 및 기술 표준의 IEEE-SA 포트폴리오를 보완한다. 또한, 비압축 4k 비디오와 오디오, USB, 이더넷, 제어신호 등을 전달하면서 하나의 100m/328ft Cat6 케이블을 통해 초고화질 비디오 올인원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링을 단순화하여 사용이 용이하게 하며, 초고화질 연결 솔루션의 전개를 가속화한다. 비용 효율적인 LAN 인프라와 전력 전송 지원은 설치 및 전력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출처: <http://standards.ieee.org/news/2015/HDBaseT.html>

■ IEEE, 무허가 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반 신설

IEEE의 IEEE 802.19™은 무허가 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존문제 (CUB, Coexistence in Unlicensed frequency Bands)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반 (SG, Study Group)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연구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공존 시나리오 및 사용사례 개발
- 공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 정의
- 개체 간에 메시지 교환 방법 연구
- 무허가 대역에서 서로 다른 무선 시스템간의 공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연구
- 정보 공유를 통해 잠재적 공존 개선 시연
- 무허가 대역에서의 공존이 야기하는 기타 문제들 조사

출처: http://standards.ieee.org/news/2015/ieee_802_19_studygroup.html

2. 유럽

■ 유럽, smart metering 강화를 위한 공동 표준 개발

유럽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미터에 대한 공동표준이 합의되었다. OPEN METER 프로젝트는 유틸리티와 제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표준화기구 등을 포함하는 19개 주요 단체가 모여 실시되었고, 유럽위원회의 €2400만 보조금을 받아 스마트 미터에 대한 개방적인 표준 초안이 작성되었다.

스마트 미터는 얼마나 많은 가스와 전력이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유럽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다양한 스마트 미터가 생산되

었지만, 시스템 및 장치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 표준의 부족으로 첨단 계량 인프라의 확산이 차단되고 있었다. 이미 주요 유럽 유틸리티들이 사용하고 있는 OPEN METER의 표준초안은 현존하는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유럽 및 국제 표준화 과정에 공급되고 있다.

출처: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setting-common-standards-boost-smart-metering>

■ ETSI,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첫 단계 작업 완료

ETSI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산업규격그룹 (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이 11개의 그룹 사양을 발표하면서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사양들은 2013년 10월 발간된 ISG 문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프라 개요, 업그레이드 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및 인프라 네트워크 도메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관리 및 결합, 보안 및 신뢰, 탄력성 및 서비스 품질 매트릭스를 커버하고 있다.

출처: <http://www.etsi.org/news-events/news/864-2015-01-press-etsi-network-functions-virtualisation-completes-first-phase-of-work>

3. 중국

■ 중국, 2014년도 전자정보통신 표준화 10대 뉴스 발표

2015년 1월 8일, CESA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ssociation²), 중국 전자공업 표준화 기술협회, CESI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³), 중국 전자 기술 표준화 연구원),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Zhongguancun Science Park⁴) 관리위원회 등의 주요 조직과 중국 전자신문 등의 매체 홍보, 그리고 MITT(공업정보화부)의 관련부처의 심사를 거쳐, “2014년도 전자정보산업 표준화 10대 뉴스”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① 정보기술과 공업 분야로 구분되었던 관리시스템 통합⁵(两化融合, 양화통합)

2) 중국 전자공업 표준화 기술협회 <http://www.cesa.cn/default.aspx>

3)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 <http://www.cesi.cn/>

4) 중관촌 과학 기술 단지 <http://www.zgc.gov.cn/>

5) 양화통합관리시스템: 양화통합은 정보기술 및 공업화의 고레벨 결합이다. 정보화가 공업화를 선도하고, 공업화가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신 산업화로 진입하게 된다. 양화통합의 핵심은 정보화를 지탱하며 지속 가능한

- 관리시스템의 통합 요구와 인프라, 및 운영지침이 발표된 후, 국가표준화위원회는 <요구사항>, <기본 어휘>, <운영지침> 및 <감사지침> 등 4개 항목의 양화통합관리 시스템 국가표준의 신청입안을 제출했고, 그 중, <요구사항>, <기본 어휘> 그리고 <운영지침>이 정식으로 입안하였다.

② 중국과 대만의 (해협 양안⁶⁾) 정보산업 협력 각서 체결

- 해협 양안 감응신호장치 산업의 발전에 따른 요구로써 표준 연구를 실시했고, 양안의 산업협력을 위하여 제 11차 해협 양안 정보산업 및 기술 표준 포럼에서 <해협 양안 감응신호장치 영역 표준연구 및 산업협약 각서>를 체결했다.
- 양안은 포럼에서 반도체조명,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 등 3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한 공동 표준을 동시에 발표했고, 30개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해협 양안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관한 공동표준>과 <협회양안 클라우드 관련 공동 표준 제정 및 산업협력 협약 각서>, <해협 양안 4G/TD-LTE 두 번째 단계의 공동 표준 제정 협약 각서> 등 3개의 각서에 서명했다.

③ 전자산업 기술표준 구축 시스템

- 공업정보화부 기술표준 시스템에서, 전자관련 업종은 <전자정보분야의“10,2,5”기술표준에서 시스템 구축 방안>과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업계의 기술 표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표준현황과 국제표준화 작업 정리하며, 국내외 관련 표준화를 연구 및 비교분석하며, 기술표준 시스템 프레임워크 등을 개선한다.

④ 휴대용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 강화 국가표준 발표

-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서의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이 여러 분야에서 중시되는 가운데, 공업정보화부는 리튬 이온 전지 안전 영역의 강제성 국가표준인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 이온 전지와 배터리안전 요구사항>(GB31241-2014)의 개발을 주도하였고, 2014년 12월 5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⑤ AVS⁷⁾와 표준생산의 단계적 성과 취득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라디오 및 TV방송신문출판부의 연합

- AVS 표준 응용 프로그램의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3월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라디오 및 TV방송신문출판부⁸⁾(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라디오 및 TV 비디오 코덱(AVS+) 기술응용 구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http://baike.baidu.com/view/3162693.htm> 바이두 백과사전 참고)

6) 해협 양안: 중국대륙과 대만

7) AVS: 중국의 독립적 지적재산권의 2세대 소스코딩 표준. <정보기술 선진 오디오 및 비디오 코딩>시스템표준의 약칭으로, 시스템, 비디오, 오디오, 디지털저작권 관리 등 네 개의 주요기술 표준과 부호화 테스트 지침 표준

8) 국가 라디오 및 TV방송 신문 출판부 <http://www.gapp.gov.cn/>

⑥ 전자산업 주요 분야의 종합 표준화 작업

- 현재, 기술 및 산업의 통합 발전과 급속한 발전 요구에 적응하기위해, 반도체조명,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리튬 이온전지, 태양광 산업발전의 핵심영역의 표준화 종합작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⑦ 정보기술(IT) 서비스 표준화 돌파구 마련

- <IT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 역량 성숙도 모델>등 6개의 국가 표준이 국가 표준위원회에 입안되었고, <IT 서비스의 서비스 관리 기술 요구사항>등 3개 항목의 산업표준의 제정 작업이 완성되었으며, <IT서비스 자문설계 제1부: 일반 요구사항>등의 13항목 표준화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⑧ 전자 산업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

- 2014년, IT 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업정보화부의 지도하에 시작되었고, <IT 산업의 사회적 책임 지침>은 산업 표준화 개발연구 작업의 정식 시작을 도왔다.

⑨ 중관촌⁹⁾기업의 주도로 제정된 북두칠성위성항법(베이더우) 시스템 등의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 <선하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수신기 설비 성능 표준> 제안이 국제 해사 기구 (IMO)의 공식 비준을 획득하였고, 이는 베이더우 시스템이 국제표준의 관련 영역에서 최초로 국제조직의 비준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베이더우의 글로벌화 응용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⑩ 국제표준화 작업에서의 향상된 “발언권”

- 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무선주파수 단자, 동축 통신케이블 등의 영역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 <IT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및 어휘>, <IT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아키텍처>, <동축 통신케이블 제 9부: 소프트웨어 케이블 사양> 등 8개 항목의 클라우드 컴퓨팅, 동축 통신 케이블 분야의 국제표준을 정식 발표했고, 중국 주도의 기술인 <사물인터넷 참조 아키텍처>와 <감응신호장치 네트워크 테스트 프레임워크>등 2개 항목의 사물인터넷 영역 국제표준이 ISO/IEC 비준을 획득하였다.

출처: http://news.xinhuanet.com/info/2015-01/10/c_133909430.htm

9)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4. 일본

■ 일본총무성, 스마트폰 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검증 등의 실증실험 실시

일본 총무성은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 안전한 이용환경 정비를 목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동작과 프라이버시 정책 기재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 메커니즘 확립을 위한 실증실험을 2015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에 축적된 이용자 정보를 부정확한 앱으로 외부에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스마트폰의 안전한 이용환경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총무성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이용자 정보의 적절한 취급 능력 향상을 통한 이노베이션 시대”를 발표했다. 이후 2013년 12월에 설치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버시 정책 보급 및 검토 추진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2014년 5월에 개최된 ICT 서비스 안심안전 연구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실증실험의 전체 그림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 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관하여 기술측면에서 제3자가 검증하는 체계로 실증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08_02000154.html

5. 한국

■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서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2건의 표준 승인

국립전파연구원은 2014년 12월 19일에 끝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추진된 2건의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2건의 표준은 ‘무선국 설치 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방법’과 ‘ICT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으로, 국제 표준화기구의 전자파 환경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무선국 설치 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방법’은 무선국을 새로 설치할 때, 이로 인한 주변의 전자파 환경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하는 세부 절차이다. 이 표준은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ICT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상세 지침이다.

이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네트워크 단말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프록시 참조모델’ 등 2건의 표준안이 승인준비과정(consent)으로 채택되었고, 회원국들의 회람 후 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41225133844

III.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2015년 국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IoT 중심으로

2015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개최되었다. 소비자 가전 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S)는 본 박람회에서 IoT(Internet of Things) 분야의 전시업체가 900개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IoT가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확인되었다.

2015 CES에서는 삼성전자의 주도로 UHD Alliance를 발족했는데, 이 UHD Alliance는 삼성전자, LG전자, 샤프, 파나소닉, 소니비주얼프로덕트,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 디렉TV, 돌비, 넷플릭스 등 주요 TV제조사와 할리우드 스튜디오, 소비자가전, 그리고 콘텐츠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서로 다른 UHD 규격을 통일하고 부족한 UHD 콘텐츠를 확보해 4K¹⁰⁾ 콘텐츠와 기기 관련 산업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CES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삼성전자는 가장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으로 선정된 SSD(Solid State Drive) ‘T1’을 선보였다. SDD ‘T1’은 30g의 가벼운 무게와 기존 외장 HDD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자동으로 온도를 감지해 과열을 막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LG전자는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 ‘웹OS 2.0¹¹⁾’과 ‘웹니스 플랫폼¹²⁾’ 등의 전략제품과 혁신기술을 소개하였고, 타 브랜드 기기와의 호환성 향상을 위해 IoT 표준기구인 Allseen Alliance와 IoT 글로벌 표준화협의체 OneM2M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cesweb.org/News/Press-Releases/CES-Press-Release.aspx?NodeID=bc2c6e17-3991-4897-88ab-114f115dc8b9>

10) 4K: 약 800만 화소. 1920x1080 Full-HD 해상도의 4배인 3840x2160해상도로 출력이 가능해 훨씬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음

11) 웹OS 2.0: 지난해 선보인 웹O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TV 전용 플랫폼

12) 웹니스 플랫폼: LG전자의 ‘생체신호분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연동해 신체 건강부터 생활환경까지 관리하는 플랫폼

■ W3C와 OGC, 웹상에서의 공간 데이터 통합을 위해 협력

W3C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는 웹상에서의 공간데이터 상호운용성과 통합 향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협력을 발표했다. 공간데이터는 위치 기반 고객 서비스, 온라인 맵, 저널리즘, 과학 연구, 정부 관리, 사물인터넷, 그리고 많은 응용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 공간데이터는 인간 활동에 필수적이기에 데이터를 웹 기반의 데이터세트와 서비스에 쉽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은 높은 가치가 있다.

2014년 3월, OGC와 W3C가 공동 주최한 공간데이터 연결 워크숍(2014 Workshop on Linking Geospatial Data)에서 이미 통합에 대해 논의했었고, 새로운 협력은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 그리고 공간데이터 퍼블리셔(publisher)들이 일반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웹 공간에서의 데이터 통합 비용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통합을 통해 공간 및 웹 커뮤니티의 사용사례와 요구사항들이 문서화 될 것이고, 웹에서의 공간 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한 모범 사례 연구가 시작될 것이며, 현존하는 W3C 권고안과 OGC 표준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력을 위해 W3C와 OGC는 각각 공간데이터 웹 워킹그룹(Spatial Data on the Web Working Group)을 신설했고, 두 그룹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결과물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w3.org/2015/01/spatial.html.en>

■ AllSeen Alliance, 오픈소스 AllJoyn IoT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신설

AllSeen Alliance는 AllJoyn 프레임워크(원격 액세스, 장치관리 및 정교한 보안과 개인정보 컨트롤)의 확장인 AllJoyn Gateway Agent를 발표했다. AllSeen Alliance는 AllJoyn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지원 협력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연결과 서비스 프레임워크이다.

AllJoyn Gateway Agent는 아래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 원격 액세스 및 관리
-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 상호운용성
- 개방형 표준 지원

출처: <http://appdevelopermagazine.com/2284/2015/1/12/AllSeen-Alliance-Launches-Open-Source-AllJoyn-IoT-Gateway-Agent/>